

To be Global leaders by the Korean Language!

안녕

An-nyeong

우송대학교의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한 뉴스레터



통권 제12호 | 2010.06.3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우송한국어교육원**

2010.06.3 | 통권 제12호

Contents

차례

- 3 교수 수필 | 학생들과 함께 한 나의 5년
- 4 새소식
- 6 제5대유학생회 소개
- 8 생각과 느낌

발행인 이근태

편집인 김병로

편집지도교수 하재선 윤남희

편집장 양근

편집위원 서도 서정 고위 최아

design 종려나무 Tel. 042)255-0309



학생들과 함께 한 나의 5년



글 최현숙
우송한국어교육원 교수

지난 체육대회 때 열심히 자기 팀을 응원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다. 멋있고 잘생긴 응원단장이 '저쪽 뒤 여학생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좀 크게 외쳐 주세요.'라고 하자 다들 깔깔대며 웃다가 다시 목 터져라 외치던 그들, 어쩔 그리도 생생하고 싱그러운지..., 마치 자기도 농구 코트에서 공을 튕기며 달리고 있는 것처럼 자리에 앉을 줄도 모르던 그들. 그들에게서 눈부신 그 무엇을 보았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젊음·열정·도약·희망·끈기이다. 새 잎이 돋아나고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의 여왕 5월, 5월은 바로 그들의 것이었다.

5? 나의 한국어 선생님 생활은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 무렵 우송대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은 웃기 없이 쭈뼛거리며 참 순진했다. 쓰기 실력을 키워야한다며 강제로 매일 쓰게 했던 일기, 솔직 담백하게 부끄럼 없이 써 내려간 일기를 읽으면서 나도 같이 고뇌하며 울고 웃었다. 선생님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힘들면서도 묵묵히 잘 따라주었던 그 학생들. 무척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 힘들어요.'라는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다.

요즘 학생들은 5년 전과는 달리 구김살 없이 밝고 활발하며 힘들다는 말도 스스럼없이 하는 솔직함도 있다. 게다가 이것도 저것도 가르쳐 달라며 선생님들을 들볶기도 하며 매사에 당당하고 아주 적극적이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웃는다. 그럴 때면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시지?' 하며 같이 웃는다. 우리 우송 한국어교육원을 거쳐 간 학생들은 매년 매학기 달랐지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참 행복했고 함께 웃으며 공부하며 보낸 시간들이 참 소중한게 느껴진다.

처음 한국어 선생님 시절 몇 년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지 못해 진땀 빼는 날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읽어 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보기도 하면서 한국어 선생님이로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후 몇 년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시키고 말하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어려웠다.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나는 지금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학생들은 뭘 배우기를 바랄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 끝없이 힘차게 날아 올라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은 아닐지라도 제대로 가르치기는 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무한無限히 비상飛上할 때 나도 같이 날고 있을 테니까.

우송대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어 프레젠테이션 실력에 놀라다!

—‘제3회 외국어경시대회’에 외국인 유학생들도 참가—



우송대에서는 지난 5월 18일(화) ‘제3회 외국어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우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들의 외국어 발표능력 및 외국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2009년 5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관계자들에 의하면 1, 2회 대회 때보다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전반적인 평이다. 특히 이번에는 ‘우송 글로벌화에 대한 방안’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팀별 출전을 원칙으로 했는데 예선은 각 과별로 치러졌으며 이날은 본선에 오른 19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날 대회는 우송예술회관에서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일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순으로 이어졌는데 한국어 부문은 예선에서 뽑힌 5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첫 발표로 나온 중국유학생 허가가(여, 영어학과) · 장력(여, 철도경영학과) 팀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유창한 한국어실력과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로 그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어서 장천(여, 영어학과) · 왕천(여, 국제경영학과) · 임배리(여, 국제경영학과) 팀이 ‘우송대가 국제화 대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예일대학교와 코카콜라의 세계화 전략에 빚대어 우송대의 글로벌화방안을 모색했다. 세 번째로 발표한 중국유학생 유평(여, 국제경영학과) · 정미(여, 국제경영학과) · 진계신(남, 컴퓨터정보학과) 팀은 성격유형별 학습 전략을 제시하는 독창적인 발표를 해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네 번째로 고소우(여, 국제경영학과) · 장빙청(여, 국제경영학과) 팀은 ‘자신을 Blue Ocean 브랜드로 경영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업경영과 대학생활을 비유해서 발표했는데, 내용의 참신성과 발표의 유창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시모옥(여, 국제경영학과) · 이정찬(여, 컴퓨터정보학과) 팀이 ‘우송인 세계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전공 선택을 2학년 때 하지는 것과 특성화된 과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어부문 심사는 김연선(KBS 아나운서), 최학(한국어학과 교수), 임명옥(한국어교육원 교학실장)이 실시했는데, 1등은 고소우 · 장빙청 팀이 2등은 유평 · 정미 · 진계신 팀이 3등은 허가가 · 장력 팀이 각각 수상했다.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은 부상으로 약 2주 기량의 한국문화체험관광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의 한국어 실력은 얼마나 될까?

—‘W-KLPT’(우송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우송한국어교육원에서는 우송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 진단과 실력 향상을 위해 이번 학기 3월 19일(금)과 5월 25일(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어능력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기존 공인 한국어능력시험인 KLPT의 난이도와 출제유형에 맞춰 본 교육원 출제교수진이 세밀히 분석하여 출제하는 W-KLPT 시험은 우송대 외국인유학생들의 객관적인 한국어능력을 진단하고, 그 시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어교육프로그램에 참고하고 반영하기 위해 지난 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본교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도 점

차 향상되어 지난 4월 25일(일)에 시행된 2010년 한국



어국가공인시험 KLPT에서도 총 387명이 응시하여 42.6%가 3급에서 5급의 중상위권 성적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유학생들,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가슴으로 한국을 느끼다!

—‘우송 Global 문화행사’ 참여—



우송대 학교와 솔브릿지 국제대학에서는 1,5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의 상호간 융화와 Global 캠퍼스 문화 정착을 위해 ‘우송 Global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행사는 지난 5월 7일(금) ‘우송 Global 동호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사진UCC, 디자인, 패션, 태권도 등 13개 동호회 4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

특히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한국문화탐방 주간’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국내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는데 ‘서울시티투어, 경주투어, 에버랜드탐방, 부산시티투어’ 순으로 이

어졌다. 그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은 5월 20일(목)에 실시된 ‘에버랜드탐방’과 5월 21일(금)에 실시된 ‘부산시티투어’이다.

에버랜드탐방에는 모두 254명의 외국인유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오전 9시에 출발해 11시에 도착한 후 학생들은 자유로운 놀이체험을 했다. 이날은 많은 인파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 그동안 쌓였던 학업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산 시티투어에는 모두 373명이 참여했는데 ‘태종대 유람선, 광안대교, 해운대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를 직접 돌아보면서 부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이 행사는 앞으로 ‘우송 Global day’(한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하루 함께 지내기 체험) 등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유학생들에게는 한국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Global 캠퍼스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Hand in Hand

—외국인 졸업생 환송회 및 동호회 발표회—

지난 5월 28일 우송예술회관에서 3시 30분부터 두 시간동안 외국인 졸업생 환송회 및 동호회 발표회가 ‘Hand In Hand’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전통무용, 한국어 교육원에서 마련한 연극 ‘춘향전’, 뷰티디자인과 학생들의 ‘워킹 쇼’, 노래 순으로 이어졌는데,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연극 ‘춘향전’은 짜임새 있는 구성과 주인공들의 열연으로 작품을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뷰티디자인과 학생들의 ‘워킹 쇼’는 전문 모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화려한 무대 매너와 워킹 실력을 뽐내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발표회는 성

황리에 끝이 났고 ‘Hand In Hand’라는 주제에 걸맞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흥겨운 시간이었다.



Hand in Hand

woos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s union

제5대 외국인 유학생회 구성

2010학년도 우송대 외국인 유학생회를 이끌어 갈 제5대 외국인 유학생회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우정과 단결을 이끌어내고 권익을 대변할 새 집행부 임원들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회장 이가 (남, 국제경영학과 4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송대학교 제5대 외국인 유학생회에서는 사무부, 문화부, 생활부, 체육부 네 부서를 축으로 <유학생회 업무제도 및 업무조례>를 보충하여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 고자 합니다. 저희 유학생회는 더 큰 책임감과 더 효율적인 업무를 통하여 본교 1,000여 명 유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송대학교의 내·외국인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학생 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친구를 만들어주고, 특히 한국어말하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송의 유학생들에게 더 보람 있는 유학생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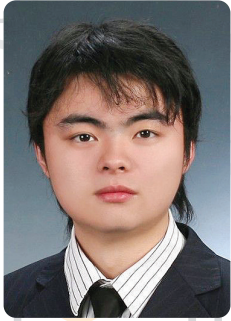
저희 유학생회는 유학생들에게 있어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더불어 단결할 수 있게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과 학교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제5대 외국인 유학생회의 주제는 "Hand in Hand"입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송대학교 캠퍼스에서 즐거운 유학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 왕개 (남, 컴퓨터디자인학부 4학년)

열정적으로 학교활동을 참가하고 세심하게 학생회 근무를 잘하고 더 좋은 유학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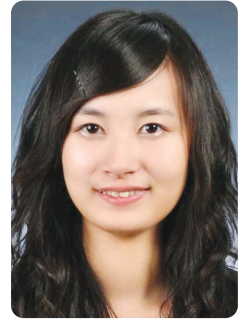


사무부장 양환 (남, 국제경영학과 4학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우리는 유학생들의 뒤에서 후방 근무 활동을 잘 해서 학생회가 학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부장 장사원 (여, 국제경영학과 4학년)

우리는 열정과 땀과 노고와 눈물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보답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응원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생활부장 공용명 (남, 뷰티디자인학과 4학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친구들이 즐거운 학교의 시간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 합시다. 유학생들 파이팅!

체육부장 인걸 (남, 호텔외식경영학과 4학년)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야. 우리는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제5대 외국인 유학생회



잊지 못할 당조(唐朝)로의 여행 경험

장원 _국제경영학과

나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데다가 중국 역사에도 특별히 흥미가 있어서 지난 여름 방학 때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중국의 7대 고도 중 하나인 서안으로 여행을 갔다.

기차에서 길고 지루한 12시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서안에 도착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남경과 달리 서안은 지하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도 많지 않았다. 우리는 예약했던 호텔을 찾기 위해 낯선 사람들에게 계속 물었다. 그때의 초조

하고 불안했던 마음을 지금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천만다행으로 호텔은 서안 역이랑 멀지 않아서 우리는 걸어가기로 했다.

우리는 서안 성벽을 따라 걸어갔다. 걸어갈수록 빗줄기가 점차 약해졌는데 드디어는 안개비로 바뀌었다. 비가 오는 바람에 길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빗물은 흑청색의 오래된 성벽을 끼고 줄줄 흘러내었다. 가로수도 평소보다 더 장엄하게 보였다. 갑자기 당조에 돌아가는 느낌이 생겼다. 여기는 서안이 아니고 당나라의 지극히 변화한 수도 장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초조한 마음도 점차 가라 앉았다.

길을 잃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기에 이 경험은 정말 나의 특별한 여행 경험이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남들과 접촉하자

대림 _컴퓨터디자인학과

집에서 노는 사람은 좀처럼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 잘 씻지 않기 마련입니다. 집에서 가장 편한 차림으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세상과의 접촉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만나는 기회가 적어질수록 사

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떠올려 보면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자기의 맨 얼굴은 자기 스스로는 볼 수 없습니다. 남이 보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비로소 자기 얼굴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대학에 가

기 전까지는 정말로 자신이 예쁘다고 여겼답니다. 가족들이 언제나 예쁘다고 말해 주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바로 진정한 의미의 타인을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비로소 성인이자 타인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팅도 나가고, 동아리에도 참여하고, 그 밖의 만남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타인과 접촉하면서 비로소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은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는 자신의 외모나 성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남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럼 유학생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숙사에서 그만 웅크리고 나와야 합니다. 고향 친구들 말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가끔 대전시 말고 다른 곳의 공기도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손잡고 나가 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 무척 기대되지요?

한국언어전공 교수님들께

장명빙 _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쏠살같이 지나 갔어요. 그 동안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님들 덕분에 잘 지내고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들었어요.

한국생활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동구문화원에 가서 한국문화체험을 한 것이예요. 우리는 한복을 입어보고 절도 배울 수도 있었어요. 제가 입었던 한복은 결혼할 때 신부가 입는 것이었어요. 그 옷은 아주 예뻐서 저도 결혼하고 싶었어요. 임초 친구가 신랑 옷을 입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왜 신랑과 신부네. 너네 진짜로 결혼해라.' 하고 놀리면서 웃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한국 떡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먹어볼 수도 있었어요. 떡을 직접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맛이 있었어요.

또 하나 잊을 수가 없는 것은 교수님들과 같이 등산한 것이었어요. 그 산은 643미터 높이였어요.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평소에 운동하지 않은 우리한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도착하니 몸이 날아갈 것 같이 행복했어요. 제 생각에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등산은 인생과 같아요. 산꼭대기까지 올라 갈 때는 힘들어서 죽고 싶은 게 마치 인생에서 부딪치는 어려움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

하면 인생의 산꼭대기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일 년이라는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은 비록 짧지만 정말 보람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여 중국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요. 곧 저의 유학생활이 끝날 거예요. 한국에서 남은 시간 제가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님들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는 것이 제 소원이예요. 또 교수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테니 마음 놓으세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한국에 다시 오겠어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동안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19일
장명빙 올림





어머니의 좁고 야윈 어깨는……

임배리 _ 국제경영학과

우리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음식은 언제나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일기를 몰래 보시기도 하죠.

어머니의 좁고 어린 어깨는 팔에 안겨 높이 올라 놓고 싶은 어린 나의 바램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나는 항상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하루 빨리 자라서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지금 어머니가 무척 그립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일도 돕고, 돌봐드리고도 싶지만, 지금은 컴퓨터 화면 속에 선명하지 않은 어머니 얼굴을 보며 가슴속의 말들을 애써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한번은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날씨가 맑아서 우리 가족은 자전거를 탔었죠. 나는 어머니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몰았고 어머니는 양산을 받쳐들고 뒤에 타고 계셨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누가 더 빨리 자전거를 모는지 내기를 해 보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난 어머니께 빨리 달릴 거니까 꼭 잡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전거가 갑자기 가벼워진 것 같았고, 자전거를 모는데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뒤에서 아버지께서 다급하게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니는 이미 내 자전거 뒤에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양산이 뒤집혔고, 그래서 어머니가 떨어지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시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아버지께 혼나면서도 엄마가 넘어져 있는 모습에 전 웃음이 났고, 그래서 아빠는 더 화가 나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땐 정말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셨

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웃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는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재미있어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지금의 저였다면, 어머니께서 한번도 절 자전거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보호해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는 자라서 부모가 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부모가 가졌던 사랑과 자신을 위해 한 희생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께 얼마나 되는 희생을 할까요?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느낀 바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우리의 어머니들께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 곧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든, 우리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제게 줄 음식을 만드십니다.

어머니가 제 일기를 몰래 보시는 건 제가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을까 걱정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어깨 비록 야위고 허약하지만 마치 날개와 같이 저에게 혹시나 닥칠지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으로부터 제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하시며,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헌신적 사랑입니다. 전에 어머니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사랑을 어떻게 다 보답하느냐고……. 어머니께서는 보답할 필요 없다고, 단지 당신이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게 될 때 미워하거나 모른 척하지만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어릴 때 날 대해주신 것처럼, 늙으신 당신을 대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낮게 여기시지만, 제게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깊이 존경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

부산아! 너를 잊지 못할 거야

곽용원 _한국언어문화전공

이번학기가 끝나면 아쉽지만 나는 바로 중국에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한국에 먼저 온 친구들에게 한국의 좋은 곳을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부산을 소개해 주었다. 지난주 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산을 가게 되었다. 마침 부산에는 유학중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서 함께 태종대에 갔다.

날씨가 아주 맑아서인지 사람들이 많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태종대에서 내려다 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돌로 탑을 쌓아서 소원을 빌었다. 나도 돌탑 위에 예쁜 작은 돌을 올리면서 소원을 빌었다. '한국사람처럼 한국말은 잘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 다음 우리는 유람선을 탔는데 바다한가운데서 부산 시내를 바라보니 부산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게 실감이 났다.

남쪽의 부산바다는 파랗고, 하늘은 맑고, 주위엔 초록 숲이 둘러 싸여 있는 것이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또 유람선에서 옥천에서 온 아저씨를 만나서 그 아저씨와 이야기꽃을 피웠다. 우리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인 것을 알고 나서 우리에게 한국문화를 잘 알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주셨다.

오륙도에 도착하니 아저씨께서 오륙도라는 이름을 생기게 된 이유를 알려 주셨다. 원래 여섯 개의 섬이었는데 바다물이 넘쳐서 하나가 없어져서 다섯 개 섬밖에 보이지 않아 사람들

이 오륙도라고 부른다고 하셨다.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방향으로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높고 하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등대라고 하였다. 등대는 밤에 배를 타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육지가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그래서 밤에도 항상 등대 위에 불을 켜고 했다. 등대는 산허리에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 갈 때 너무 힘들었지만 막상 도착하여 보니 눈앞에 펼쳐진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랄 정도였다. 정말이지 그 경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고였다. 특히 바다 하나가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다.

부산여행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친구가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대전행 기차를 놓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는 수없이 섭섭한 마음을 뒤로 하고 대전으로 향하였다. 지금도 생각하면 부산은 저 멀리 있지만 마음속에 부산의 아름다운 추억이 생생하다.

부산아, 난 하얼빈에 곧 돌아가지만 너를 잊지 못할 거야! 잘 있어!





피구에서 살아남는 비법

고위 _국제경영학과

한국에 온지 이제 두 번째 학기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신나게 놀지 못해서 지루하게 지냈지만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서 많은 행사를 준비해 준다. 운동회도 있고 문화체험도 있고 프로젝트 발표도 있다. 그래서 많이 참

석해서 재미있게 보내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운동도 도전하기로 했다. 피구 게임하고 응원 팀에 참가했다. 운동회는 곧 눈앞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열심히 연습을 시작했다.

첫 연습 때 피구가 뭔지 처음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다. 어려운 경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빠르게 공을 잘 피하면 될 줄 알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공으로 상대팀 선수들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기를 할수록 피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던지는 사람은 증가하기 때문에 공을 피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느냐는 얼마나 많은 상대팀 선수들을 신속하게 공으로 맞추는지에 달려 있다. 처음에는 다들 규칙을 잘 모르기도 하고 팀 선수들도 잘 아는 사람 아니기도 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했다. 자주 공을 상대팀 선수한테 주게 돼서 다들 날 심하게 비웃었다. 그리고 친

한 친구가 상대팀에 들어가서 공을 던질 때 힘 있게 그 친구한테 던지지 못 해서 결국 공을 빼앗기게 만들었다. 정말 나쁜 친구라고 이제 알게 됐다. ㅎㅎ...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팀 친구들 나한테 네가 스파이냐고까지 물어 보기도 했다. 대망신이다. 농담인 줄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불안했다. 잘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달렸다. 지금까지 몸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해 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다. 비결까지 연구해 봤다. 먼저 공을 피하려면 팀 선수끼리 멀리 주고받는 게 좋다. 그리고 공으로 상대팀 선수를 맞추려면 눈치를 채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또 친구가 "공을 여러 사람한테 주고받고 나서 던지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그냥 던지는 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눈치 채지 않게 한다면... 왜냐하면 피구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가 방향을 못 찾는다면 피하는 확률도 낮아질 것이다" 이 작전들을 다 같이 나누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경쟁이 치열 해 질수록 점점 많은 흥미를 느꼈다. 시간이 다 되어도 모를 정도였다. 이러다가 우리 정말 1등을 하는 거 아니야? ㅋㅋ...

운동회 참석하기 정말 잘 한 일인 것 같다. 좀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농담도 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생기고 살도 좀 뺄 수 있다. ㅋㅋ...정말 좋다.

그러니까 우리 유학생이 이런 활동에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 정말 하면 알 수 있는 것— 얼마나 재미있는지.

비 개인 날의 오후

채효연 _국제경영학과

기숙사 창밖을 보니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일기 예보에서도 맑다가 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봄을 좋아합니다.

비가 개인 후 높은 하늘과 상큼한 풀냄새를 맡을 수 있고 사방에서 돌아나는 파란 새싹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하늘은 자주 흐린 탓에 하늘이 너무 낮게 드리워져 있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을 보면 마음도 울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 내리는 날을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온 후부터는 왠지 비 내리는 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청명한 하늘이 어찌나 깨끗하고 좋던지 공중에 부~웅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햇빛도 눈부시고 공기도 싱싱하고 화초의 향기가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기숙사 주변을 혼자 산책하면서 화초의 향기에 흠뻑 취하곤 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더 변덕쟁이가 되고 있어요.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그치고 또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이제 곧 여름이 올 것 같아 아쉽지만, 바람결에 들리는 나무와 화초의 '스르륵 스르륵' 소리가 제 귀에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나무와 화초가 저에게 귀엣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 뒤에 또 후두둑후두둑 빗소리가 들리겠지요. 그리고 하늘은 다시 한 번 맑은 미소로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에.....

무균 _국제경영학과

나는 이제 스물 세 살인데 지금까지 항상 부모의 염원이나 가족의 희망에 따라 살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 속에서 매우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고, 내 자신의 희망과 생각에 따라 살고 싶다.

만약 내 국제경영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다면....., 나는 내 자신부터 잘 디자인해서 이런 뚱뚱한 모양이 아니고 아주 날씬한 예쁜 여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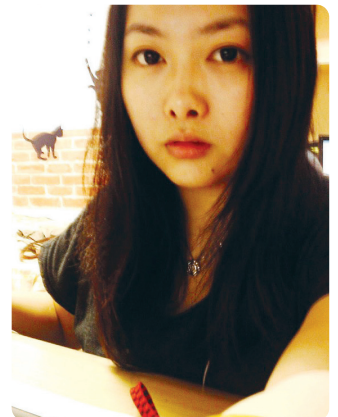
만약 내가 한국에 오지 않고 여전히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지금쯤 나는 남자 친구와 같이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슬그머니 부모님에게서 호적부를 훔치고 결혼 증서를 벌써 만들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내가 지금 학생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진 직장인이었다면....., 나는 지금 얼마쯤은 명성이 있는 광고인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각 잡지거나 텔레비전에서도 내가 만든 광고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런 명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교외에 큰 집을 지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만약, 만약에....., 이런 것들은 다 나의 환상이다.

사실 지금 나는 한국에서 국제경영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나는 매일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부모의 돈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 희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차근차근 내 미래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 나는 분명히 내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을 다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만약이 아닌 내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진짜 값진 현실을 위해......





재미있는 밤을 준 찜질방

육정 _국제경영학과

한국에서 온지 벌써 6개월 되었는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낯설지만 점차 익숙한 환경에서 우리는 한국문화를 경험하고자 여러 군데 둘러봤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서울에 처음으로 갔는데, 작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니 서울의 밤 날씨가 춥고 바람도 강해 우리는 같이 처음으로 찜질방에 갔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가 보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온천도 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나게 놀다가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친구들과 물에 뜨는 내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강한 압력을 느꼈는데 순간 그 압력이 내 다리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 순간적으로 압력으로부터 내 다리를 어서 뽑아내고 싶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큰소리로 부르짖어서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난 물이 나오는 쇠호스를 발견했는데 빨리 한 손으로 꼭 잡고 친구들은 나를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 압력 안에서 겨우 나왔습니다.

나는 기분이 이상하고 무서워서 목욕탕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 다리에는 빨갧게 부어오른 선명한 자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내 다리를 보고 모두 하하 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때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이 후에 친구들은 나만 보면 찜질방에서 발생한 일을 상기하고 계속 웃었습니다. 난 오직 침묵만 지켰습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 매우 괴로운 추억이지만 찜질방에서 재미있는 밤과 또 하나의 잊지 못할 한국 체험을 남겨주었습니다.



보고 봐도 인생에서 뺄 수 없는 소중한 경험

오아원 _국제경영학과

이 세상에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씩은 누구나 다 보았습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접하게 됩니다. 난 시험은 매우 싫어하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봄으로써 자기의 실력을 평가하고 부족한 곳을 보충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시험이 없으면 어떨겠습니까? 물론 학생들이 학생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매일 놀게 되고, 그 나라의 교육수준은 빠른 시일 내에 떨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시험만 없

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그 들어가기 힘든 대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될 텐데... 공부 때문에 자살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아이들이 사라질 텐데... 시험이 뭤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 하지만 크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비록 난 시험이 무척 싫지만, 시험은 우리가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시험 본 횟수는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잘 봐서 무척 좋아한 적도 있고, 시험을 못 봐서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험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지만, 우리가 좋은 쪽으로 많이 활용한다면, 그리고 평소에 조금씩 준비를 해 놓으면 시험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자기의 지식을 평가해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즐거운 한국생활

서정_뷰티디자인학과

제가 한국에 온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길이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하늘이 아주 예뻐요. 노란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을 보면 동화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하늘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고 가족들과 중국친구에게 보냈습니다. 한국의 공기도 아주 좋고 그게 저를 공부하게 만드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처음에 우리 학교 왔을 때는 너무 생소했지만 저는 지금 우리 학교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크지 않은 운동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옆에 늘어진 나무들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숙사의 환경도 좋습니다. 제가 사는 기숙사는 이인실인데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나와 같은 고향에서 온 친구입니다. 기숙사는 화장실도 깨끗하고 샤워할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의 일층에서 휴게실도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과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헬스장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항상 꼭 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 일층에서 식당도 있습니다. 식당에 있는 음식이 맛있고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학교 근처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 사천사람인데 매운 음식을 엄청 좋아해서 해장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쇼핑할 때 은행동하고 서대전에 많이 갑니

다. 거기에 예쁜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옷이나 신발을 살 수 있습니다. 은행동에서 파는 물건이 서대전에 있는 물건보다 좀 비쌌습니다. 또 서대전은 너무 멀어서 자주 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같이 놀기도 하고 수업도 함께 들어서 이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어를 주로 배우는 과정을 지나고 이제 전공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다 한국사람이라서 전공수업을 들을 때 좀 어려워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아주 친절하고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반 교수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긴 파머머리인데 아주 예뻐요.

한국에 유학하는 동안 제가 한국의 많은 문화나 예절을 배웠고 한국어 수준을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 친구랑 다른 국가의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한국생활을 더 재미있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계룡산, 내가 너를 정복했다...

김아정 _국제경영학과

지난 주 토요일에 사회봉사자가 있었다. 우리 팀은 같이 계룡산에서 등산하기로 했다. 나는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 가기 전에 기분이 아주 유쾌했다. 그리고 그 산이 얼마나 높을까 산은 어떤 모양일까 상상해봤다.

우리는 산 밑에서 준비해온 김밥을 먹고 등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이 넘쳐서 빨리 등산할 수 있었다. 등산하는 길에 여승들을 많이 봤다. 왜 오늘은 여승과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냐고 우리 팀의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다. 언니는 이번 달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달이라고 말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동학사에 많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동학사를 구경했다. 나는 어느 나무 밑에 있는 용 석상을 발견했다. 그 용은 엷드려서 나무만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크기는 작지만 사실적으로 생겼다. 이 용은 그 나무를 수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옛날에 중국에서 나는 자금산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계룡산은 자금산과는 좀 다르다. 자금산은 계단이 있어서 편리하고 산 중간에 편의점도 있는데 계룡산은 계단이 없어서 아주 힘들었다. 또 편의점이 없어서 등산하면서 물이 떨어졌는데 물을 더 마시고 싶으면 곤란하다.

우리가 산 중간에 도착했을 때 우리 팀 두 사람은 힘이 없어서 쉬다가 먼저 내려갔다. 하지만 나는 꼭 끝까지 가야한다고 했다. 뭐든지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하는 게 내 성격이다.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은 계속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산 꼭대기는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올라가면 갈수록 힘들고 추워졌다. 가까스로 산 정상에 도착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계룡산, 내가 너를 정복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산 정상의 경치가 꽤 아름다웠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다. 또한 세상을 한 눈에 내려다보는 묘한 느낌이 있었고 시야도 넓어졌다.

산을 내려가는데 빨리 걸어서 무릎이 참 아팠고 눈앞에 다들만 보여서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지만 마음은 아주 뿌듯했다.



한국에서 인상적인 것

조비 _국제경영학과

한국사회에서는 가는 곳 어디에서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이름과 고향을 물어보고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물어봐서 서로

동일한 것이 있으면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의 성씨는 중국인의 성씨와 비슷합니다. 가장 많은 성씨는 김, 이, 박, 최 씨 등이고 단일 민족, 통일 문자의 사회가 마치 한 가족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 가정에 보통 두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자녀도 많이 있지만 한 가정에는 중국 가정보다 자녀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동창회, 종친회 등 각종 모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 관념 및 가족 관념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선후배 관계는 마치 무협 소설 중의 의형제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마다 모두 선후배 관계로 자기의 인간관계를 조성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학교 선후배와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성씨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도와주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그것이 아주 깊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저는 춤에 푹 빠졌습니다

서도_국제경영학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춤입니다. 춤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힙합, 차차차, 발레, 재즈댄스 등등등. 그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힙합입니다. 힙합 중에서도 저의 전공은 팝핑입니다.

대학 1학년 때 남경효장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때에 힙합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남경에서 유명한 댄스 학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힙합댄스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팝핑을 골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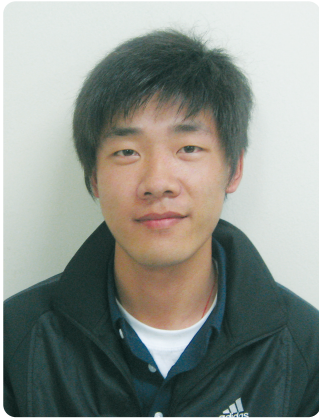
제 춤 선생님 이름은 Fido(啓蒙)입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FIDO 선생님은 팝핑을 아주 잘 하십니다. 남경 힙합 경연대회 팝핑 부문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FIDO 선생님께 팝핑을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 댄스 학원에서 팝핑을 1년쯤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팝핑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대전으로 유학 왔습니다. 반 학기가 지나자 저는 팝핑을 몹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댄스 학원 사장님

을 잘 알고 있는 선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배는 댄스 학원 사장님께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학원에서 팝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춤을 춰 왔습니다. 요즘은 한창 공연 준비 중입니다. 너무 바쁘지만 재미있고 제 유학생활도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가끔 슬프거나 힘들 때면 춤을 춰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즐거워집니다.

저는 날마다 연습합니다. 이렇듯 춤은 제게 취미일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힘차게 춤을 추겠습니다.





아름다운 봄

왕영영 _컴퓨터정보학과

미풍이 수면위에 불어와
파문이 뜬다
물에 놀고 있는 물고기
물결 따라 수영해 가는데
이봄을 잡고 싶은 것
같다

미풍이 풀숲위에 불어와
꽃들이 허리를 흔들고

나비들도 경쾌하게 춤 춘다
나무들이 재미있는 소리를 내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는 봄을 위해 부르는 것 같다

미풍이 하늘에 불어와
양 떼 같은 하얀 구름들을 몰고 간다
남빛 하늘의 품에

새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는데
봄에게 자기 빛을 나눠 주는 것 같다

봄, 어떤 모양일까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있는 듯한 그림일까

봄, 어떤 모양일까
그는 움직인다
그래서 변화하는 구름일까

미풍이 나의 얼굴 옆으로 다가와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는다
봄은 부드럽고
귀여운 여자 아이이다



지구의 눈물

육소환 _호텔외식경영학과

둥근 것들은 눈물이 많다.
눈물 왕국을 하나씩 가지
고 있다.

칼로 수박을 쪼개다 수박
의 눈물을 만난다.

어제는 혀에 달은 과즙
맛에만 취하여 수밀도를 먹
으면서 몰랐지

사과, 배, 포도알까지……
둥근 몸은 모두 달고 깊은 눈물 왕국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는 걸

어머니의 몸, 저 깊은 곳
생명의 강이 되는 눈물

그리하여 사람의 몸도 눈물 왕국 되게 하는

그렇기 때문인가
사람들은 둥근 것만 보면 깎거나 쪼개고 싶어 한다.

지구도 그 가운데 하나다.
숲을 깎을 때마다,
땅을 쪼갤 때마다,
사람들은
날마다 지구의 눈물을 뽑아 먹는다.

번성하는 문명의 칼날
지구 깊숙이 찌른 그 단맛에 취해
드디어는 북극의 눈물까지 먹는다.

마음의 변화

손호리 _언어연수

한국에 온 지 거의 일 년이 다 됐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아린 마음이 여전히 며칠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 혼자라는 외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품속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다가 알에서 갓 깨어난 병아리처럼 세상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제 유학생활은 시작됐습니다.

사실 유학생활이라고 해서 화려한 꽃다발처럼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저로서는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공기로 인해 울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어 수업도 하기 싫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 왜 한국으로 왔니?'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차가웠던 제 마음이 점점 따스하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시작 된 지 일주일만 지난 후부터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친절한 선생님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점점 한국어 수업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무섭지 않고 친

절하게 가르치셔서 그 정성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채로운 수업 내용 때문인지 생각보다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생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중국 교육과 한국 교육 방법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교육은 자유로움 속에서 창조력을 키우게 합니다. 이런 교육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미래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진 저는 매일 웃으면서 기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유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만 참고 견뎌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게 변하게 되고, 유학생활이 즐거워 질거예요.



世宗 御製訓民正音
 나랏말싸미 중궁 언알아
 文 字 卽 和 爾 所 不 知 矣 矣 矣
 이런저런 어린 백성이니
 저 흠배이셔도
 무춤내제브들시러퍼디물음노미하
 니라 내이를 爲 亨 矣 矣 矣 矣
 새로스름여름 字 卽 鳴 矣 矣
 사람과 다하여 스빙니겨 발로부매 便
 平安 크고고저함사르미니라



우송한국어교육원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300-719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55-3 Tel : 042)629-6697, 629-6698